

주요 고독사 사망자, 50대 남성!

이번 주 넘버즈 주제는 지난 주 주제 '외로움'에 이어 '고독사'로 정했다.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둘은 심리적, 철학적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외로움(Loneliness)은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 즉 부정적 감정 상태를 내포하지만, 고독(Solitude)은 홀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고독은 외로움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간은 때론 고독을 즐기지만, 고독사는 또 다른 문제이다. 1인 가구의 증가, 사회적 고립도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병폐로서 꾸준히 청년/중장년 고독사 문제가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0년 3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고독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률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이번 호에서는 고독사의 실태와 위험자의 특성과 생활, 한국인의 고독사 인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는 최근 5년(2017~2021) 사이 40%나 증가했고, 고독사 사망자로는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한편, 우리 국민은 자신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32%(전체 평균)라고 응답해 국민 상당수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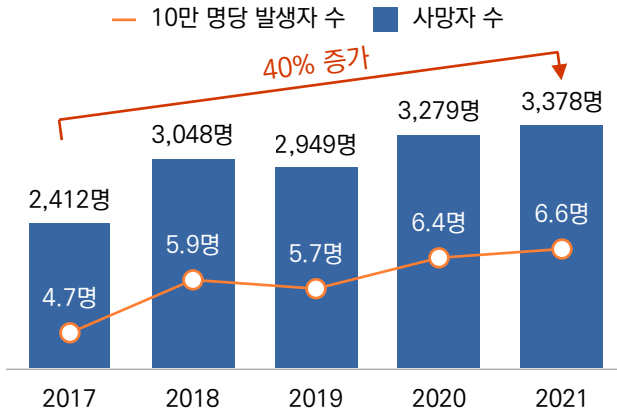


01

[고독사 실태] 고독사, 5년 사이 40% 증가

- ▶ 우리나라 정부(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올해 초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경찰청 변사자 현장 감식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2017년~2021년 까지 5년간의 고독사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5년 새 40% 증가했으며, 2021년 기준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자 수는 6.6명이었다.

[그림] 고독사 발생 현황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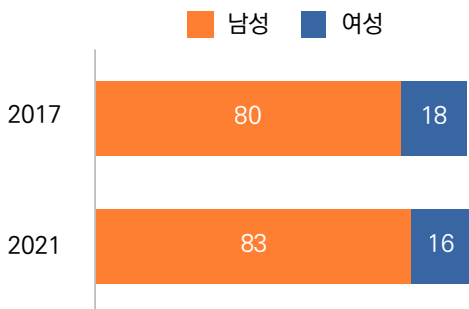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2017.01.01.~20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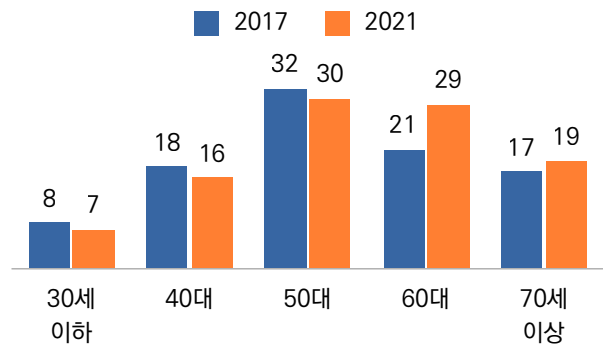
◎ 주요 고독사 사망자, 50대 남성

- ▶ 고독사 사망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 대비 압도적으로 높고, 연령대는 2017년과 2021년 모두 50대가 가장 높다. 다만 2021년 60대의 고독사 비율은 29%로 5년 사이 크게 급증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고독사 성별 비중** (%)



[그림] 고독사 연령대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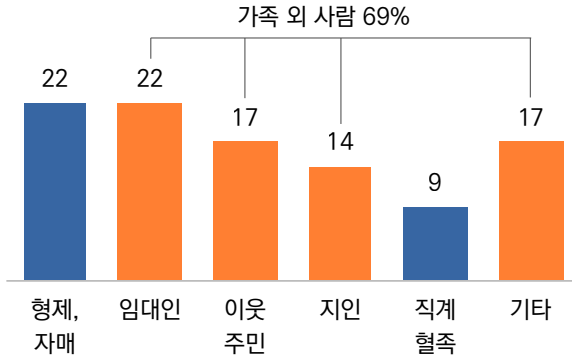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2017.01.01.~2021.12.31.)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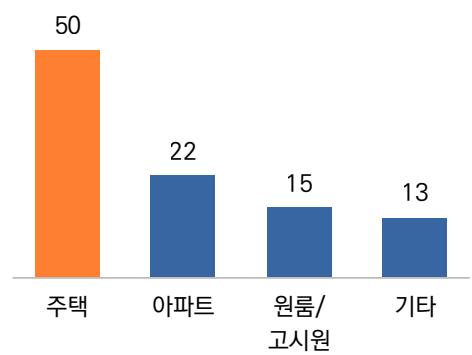
◎ 고독사 10명 중 7명, 가족 아닌 사람에게 발견돼!

- ▶ 고독사를 가장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한 자는 누구일까? 형제, 자매, 직계혈족을 제외한 ‘가족 외 사람’에게서 발견된 경우가 전체 고독사의 69%나 돼 가족 간 연락/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추측할 수 있다.
- ▶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이 5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아파트 22%, 원룸/고시원 15%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형태가 ‘주택’인데**, 특히 다세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50~60대 중장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고독사 최초 발견자(신고자) (2021, %)



[그림] 고독사 발생 장소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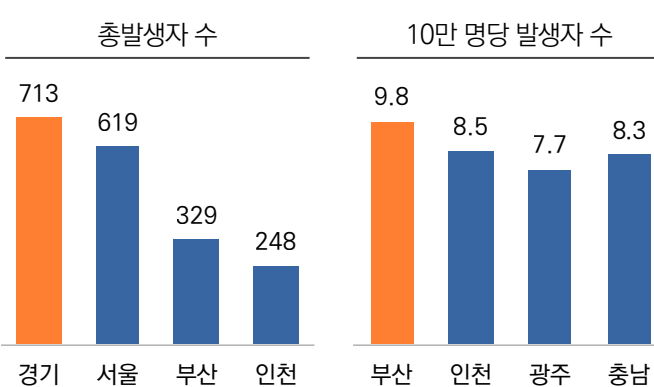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2017.01.01.~2021.12.31.)

**자료 출처: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2023.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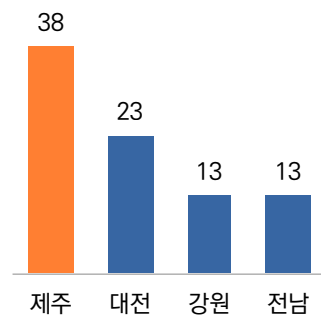
◎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 ▶ 지역별 고독사 발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가 한 해 동안 713명(2021년 기준)으로 시·도·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10만 명당 발생자 수'로 보면 '부산(9.8명)'이 1위였다.
- ▶ 지역별 고독사 증가율(2017~2021년)은 '제주'가 38%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대전' 23%, '강원' 13%, '전남' 13% 등의 순이었다.

[그림] 지역별 고독사 발생 수 (2021, 상위 4위, 명)



[그림] 지역별 고독사 증가율 (2017~2021년 평균 증가율,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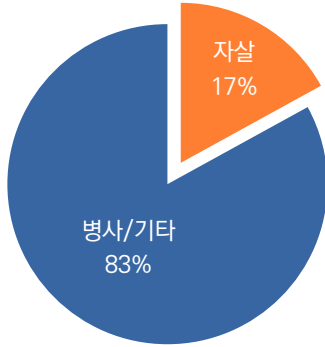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2017.01.01.~2021.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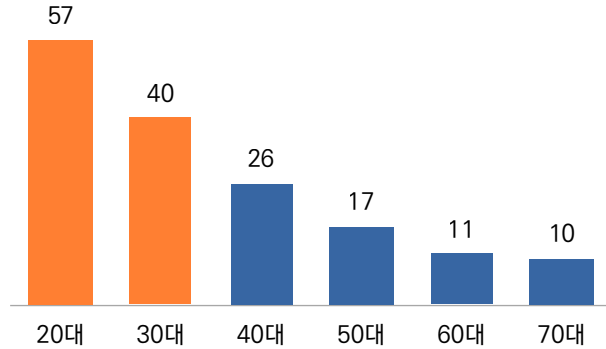
◎ 20대 고독사 10명 중 6명은 자살!

- 고독사의 주요 사인은 자살, 병사 등인데 전체 고독사 사인의 17%가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7%, 30대가 40%로 나타나 2030 젊은 세대의 고독사 자살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림] 고독사 사인



[그림] 고독사 중 자살 사망자의 연령별 비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사망자의 주요 통계 산출, 2017.01.01.~2021.12.31.)

02

[고독사 위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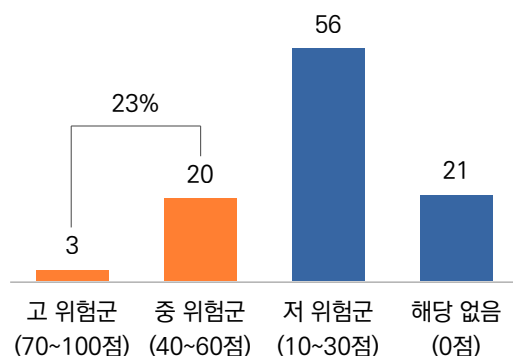
1인 가구 4명 중 1명은 고독사 위험군!

- 이번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는 '경찰청 행정 데이터를 활용한 전반적인 고독사 통계'와 함께 전국의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9,471명을 대상으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고독사 위험군'을 선별하여 조사한 결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제부터 그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 아래의 5가지 지표와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구분하여 집계한 결과, 총 40점 이상인 중·고 위험군이 1인 가구 4명 중 1명가량(23%)으로 조사됐다.

[표] 고독사 위험군 판단 항목**

지표	내용
실패·상실감 누적	이별, 자녀 사망, 실직, 노숙, 실패(시험,사업), 동업자 배신, 수급 탈락, 폭행/폭력 여부
고립적 일상	식사, 외출, 지인 소통, 음주 후 블랙 아웃 횟수
사회적 고립	경제적/신체적/정신적 도움 줄 사람 여부
이동성 높은 생애	이사/이직 횟수
돌봄과 지원 중단	복지/돌봄 서비스 지원 중단, 거부 여부

[그림]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군 구분 결과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전국 만 19세 이상 1인가구 9,471명, 웹+전화 조사, 2022.11.22.~12.07.)
**고독사 위험군 점수 기준과 판별 테스트는 9p 참조

◎ 고독사 위험군 : 별거/이혼/사별자, 남성, 50-60대!

- 위에서 선별한 고독사 중·고 위험군 2,023명만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61%로 여성 3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 60대가 각각 25%, 23%로 가장 많았으며,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54%나 되었다.
- 또 고독사 위험군 3명 중 2명 가까이(63%)가 '월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혼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절반 가까이(46%) 되었다.

[표] 고독사 위험자 특성 (고독사 중·고 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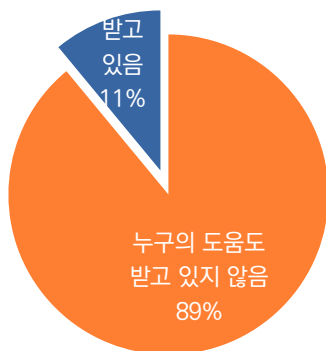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성별	남성		61	연령별	19~29세	9	
	여성		39		30대	13	
혼인 여부	미혼(연인 있음)		11		40대	16	
	미혼(연인 없음)		28		50대	25	
	혼인		7		60대	23	
	별거/이혼/사별		54		70세 이상	14	
혼자 산 기간	2~3년		18	월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3	
	3~5년		14		200~400만원	29	
	6~9년		13		400~600만원	6	
	10년 이상		46		600만원 이상	3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고독사 중·고 위험군 2,023명, 웹+전화 조사, 2022.11.22.~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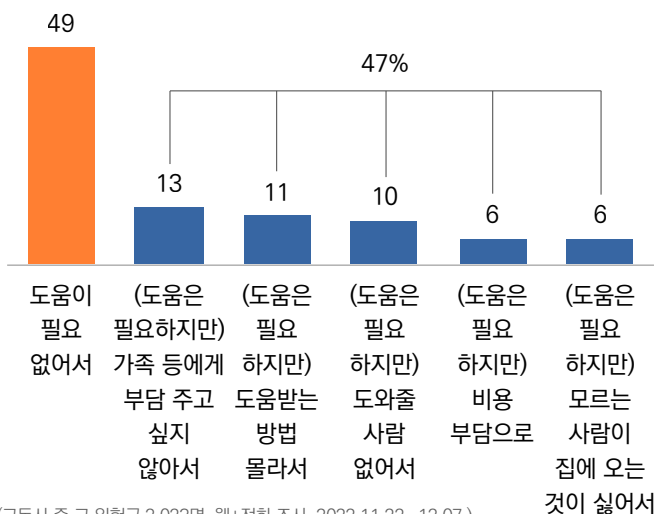
◎ 고독사 위험자의 대다수,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아!

- 고독사 위험자에게 고독사와 관련이 있는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를 묻은 결과, 대다수(89%)가 '도움받고 있지 않음'으로 응답했다. 도움받지 않는 이유의 절반(49%)은 '도움이 필요 없어서'였고, 절반(47%)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못 받고 있는 경우로 나타나, 사각지대 발굴 노력과 함께 고독사 위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독사 위험자의 필요에 관해 교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고독사 위험자의 공공서비스** 수혜 여부 (고독사 중·고 위험군, %)



[그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공공서비스 받지 않는 고독사 중·고 위험군,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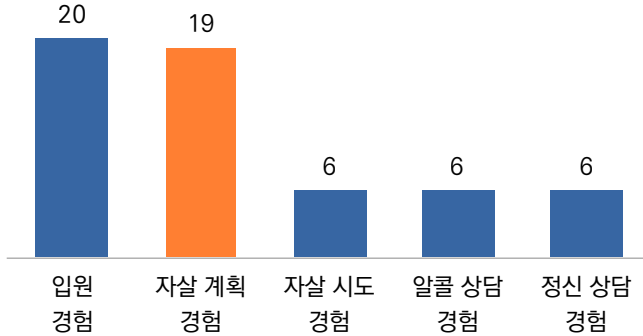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고독사 중·고 위험군 2,023명, 웹+전화 조사, 2022.11.22.~12.07.)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간병인, 노인돌봄, 부식 제공, 응급알람 설치 등

◎ 고독사 위험자 5명 중 1명, 자살 계획 세운 적 있어!

- 고독사 위험자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지난 1년 기준으로 '입원 경험이 있는 경우'가 20%였고,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 비율도 5명 중 1명꼴(19%)이었다. 그 외 '정신 상담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이 각각 6%로 나타났다.

[그림] 고독사 위험자의 건강상태 (고독사 중·고 위험군, 지난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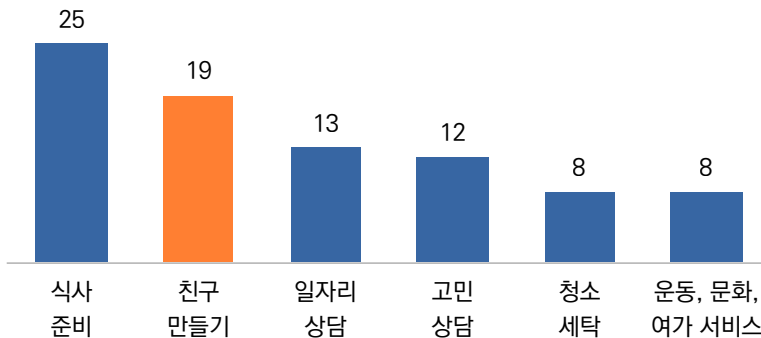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고독사 중·고 위험군 2,023명, 웹+전화 조사, 2022.11.22.~12.07.)

◎ 고독사 위험자, '친구 만들기' 등 관계적 욕구 커!

- 고독사 위험자에게 지금은 받고 있지 않으나 필요하거나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지를 묻은 결과, '식사 준비(도시락)'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구 만들기' 19%, '일자리 상담' 13%, '고민 상담' 12% 등의 순이었다. '친구 만들기'와 '고민 상담' 등의 응답을 보면 이들의 높은 관계적 욕구를 보여 준다.

[그림] 고독사 위험자의 필요 서비스 (고독사 중·고 위험군, 복수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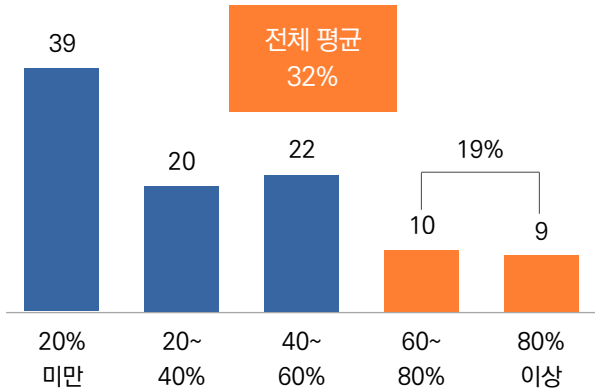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고독사 중·고 위험군 2,023명, 웹+전화 조사, 2022.11.22.~12.07.)

03

[일반 국민의 고독사 인식] 우리 국민, '나의 고독사 가능성', 평균 32%!

- ▶ 이번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고독사 가능성이 0%에서 100%까지 있다고 할 때,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를 묻은 결과, 전체 평균은 32%로 나타났다.
- ▶ 구간으로 보면 '20%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으나, 우리 국민 5명 중 1명(19%)은 '내가 고독사할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응답해 주목된다.'

[그림]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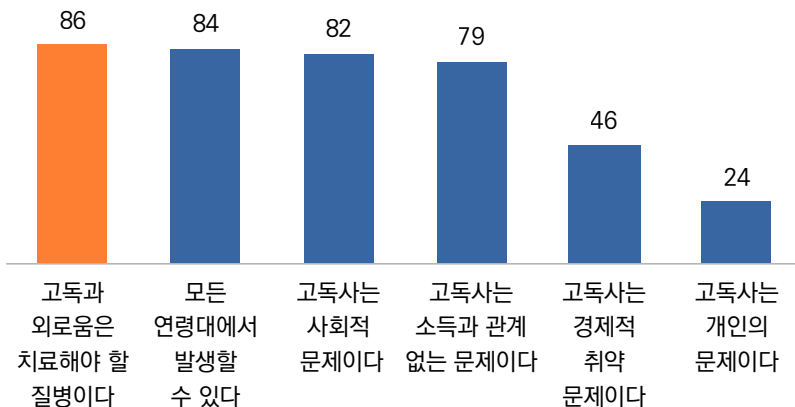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한국리서치, 2022.11.14.~11.21.)

◎ 우리 국민 대다수, '고독사는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

- ▶ 우리 국민의 고독사 인식을 살펴보고자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율을 물었다. '고독과 외로움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다'에 대다수(86%)가 동의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84%)', '고독사는 사회적 문제이다(82%)'에 80%대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또, '소득과 관계없는 문제'라는 데에도 79%가 '그렇다'고 응답해 전 사회 계층, 즉 '모든 국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림] 고독사 인식 (일반 국민, 동의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연구', 2023.02.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온라인 조사, 한국리서치, 2022.11.14.~11.21.)

**4점 척도로 '매우+대체로' 그렇다 비율

고독사 위험군 판별 TEST

[Q1] 최근 10년 동안 다음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수응답)

- ①이별(사별, 이혼, 결별) ②자녀 사망 ③실직 ④실패 (시험, 사업)
⑤동업자 배신 ⑥수급 탈락 ⑦노숙 ⑧폭행/폭력

--> 2개 이상 10점

[Q2] 최근 1주일 평균적으로 하루 식사 횟수는 몇 회입니까? (과자 등 간식 제외)

- ①1회 ②2회 ③3회 이상

--> ①번 선택 10점

[Q3] 필수목적(생필품 구입, 병원진료 등) 외에 지난 1주간 외출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모임, 쇼핑, 산책, 운동 등)

- ①없음 ②1회 ③2회 ④3회 이상

--> ①,②번 선택 10점

[Q4] 지난 1주일 동안 지인을 만나거나 전화, 문자(카톡 등)로 소통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없음 ②1회 ③2회 ④3회 이상

--> ①,②번 선택 10점

[Q5] 지난 1주일 동안 필름이 끊길 정도로 혼자서 술을 마신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없음 ②1회 ③2회 이상

--> ②,③번 선택 10점

[Q6] 귀하는 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없음 ②1명 ③2명 이상

--> ①번 선택 10점

[Q7] 몸이 아플 때 돌봐 주거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없음 ②1명 ③2명 이상

--> ①번 선택 10점

[Q8]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 대화를 나눌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없음 ②1명 ③2명 이상

--> ①번 선택 10점

[Q9-1] 지난 10년간 이사를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 ①없음 ②1~4회 ③5~7회 ④8~9회 ⑤10회 이상

[Q9-2] 지난 10년동안 직장 이직 횟수(아르바이트 및 단기직 포함)

- ①없음 (1개 직장) ②1~2회 ③3~4회 ④5~7회 ⑤8~9회 이상 ⑥10회 이상 ⑦ 취업경험 없음

--> Q9-1 또는 Q9-2번 질문에서 '10회 이상' 선택 시 10점

[Q10] 복지서비스나 돌봄(간병)서비스를 받던 중에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을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질병 치료를 중단(퇴원)하거나, 치료를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있음 ②없음

--> ①번 선택 10점

<응답 결과 분석>

1. 70~100점 : 고 위험군
2. 40~ 60점 : 중 위험군
3. 10~ 30점 : 저 위험군

*Q1: 실패와 상실감, Q2~5:고립적 일상, Q6~8: 사회적 고립, Q9: 이동성 높은 생애,
Q10: 돌봄과 지원 중단 영역 질문임

최근 방영된 SBS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라는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해양 놀이공원 '마린랜드'에서 돌고래쇼를 하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 키스카'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슬란드 해역에서 포획되어 수족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5마리의 새끼를 낳았지만 열악한 사육 환경으로 정상 수명의 1/10 정도인 5, 6년 만에 새끼들이 모두 죽고 유일한 친구인 범고래마저 죽으면서 수조에 홀로 남게 된다. 이후 키스카는 평소에 하던 행동을 모두 멈추고 누군가를 부르듯이 울음소리를 내고 수조에 부딪히며 자해하기도 하고, 급기야 삶을 포기한 듯 아무 행동을 하지 않다가 홀로 남은 지 11년 만에 생을 마감한다.

키스카가 죽은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외로움이었을까, 고독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흔히 외로움과 고독을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둘은 철학적·심리학적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외로움(loneliness)은 정서적으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고 고독(孤獨, solitude)은 홀로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난주 넘버즈에서는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번에 별도로 '고독사' 주제를 다룬 이유는 이 둘이 연관이 있으면서도 구별되기 때문이다. 고독은 외로움의 원인이 되며, 외로움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신체적인 약화를 불러와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고등생물이라고는 하지만 고래 같은 동물도 고독한 환경에서 외로움에 지쳐 삶을 포기하는데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 호에 참조한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는 고독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부 차원에서 법령까지 제정하여 발표한 국가 차원의 첫 공식 통계로서 그 의미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는 2021년 3,378명으로 2017년 대비 40%가 증가했는데, 2016년(1,820명)을 기준으로 하면 6년 동안 무려 85%가 증가했다. 고독사 최초 발견자의 69%가 가족 이외 사람이라는 결과는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외로운 삶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의 17%가 자살이라는 점에서 이른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외롭고도 극단적 상황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독사는 특성상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데, 2023년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

구의 35%에 해당하고¹⁾ 205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²⁾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현재, 일반 국민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32%라고 응답한 것은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먼저 교회 내에서는 소외되고 외로운 환경에 처한 성도를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해야 한다.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하거나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지 묻은 결과 '식사 준비', '친구 만들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고민 상담', '운동·문화·여가 서비스' 등이 있었다. 모두 교회가 충분히 연결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활동들이다.

다음으로 고독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밖 고독사 위험자들을 돌봐야 한다. 외로움과는 별개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립된 자들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1인 가구 중 '실패와 상실 경험, 고립된 환경, 잦은 이동성, 사회 서비스의 중단'에 처한 사람들을 고독사 위험자로 분류했는데, 남성·별거/이혼/사별자·50/60대, 저소득층에서 위험 비율이 더 높았다. 고독사 위험자의 대다수(89%)는 누구의 도움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는데, 도움은 필요하지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방법을 몰라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등 고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필요를 외치고 있는 위험자에게 관심을 두고 도움을 줘야 한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은 외로움과 고독의 시대에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며 역할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연말을 맞아 한국교회가 교회 안 또는 교회 밖의 고독사 위험군, 즉 혼자 사는 남성·별거/이혼/사별자·50/60대,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이들을 따뜻하게 돌보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1) 통계청,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3.12.12. 2022년 1인가구 수는 약 750만개.

2)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12.07.